

## 그 날 (예살로니가전서 4:13-5:11)

▶ 올해를 두고 우리가 받은 말씀이 있다. 치유 학교, summit 학교 하는 것, 그리고 다민족 운동 해야 한다. 우리는 모든 언약에 마침표를 찍기로 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말씀을 언약으로 받는 것 뿐이다. 그리고 기도 하며 기다리는 것, 하나님이 여시면 그리로 가는 것이고 안 여시면 계속 기도 하는 것이다. 약속은 성취되기 때문에! 오늘도 약속 하나를 주셨다. “그 날”이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 도적같이 올 것이라고 했지만 우리에게는 도적같이 오지 않는다.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호령소리가 임할 것이라고 했다. 그 날이 우리 모두의 최고의 날이 될 것이다.

▶ 그냥 설교로 들으면 설교로 끝나지만 언약으로 잡으면 말씀이 된다. 모든 말씀이 언약이 되기 바란다. 성경은 지혜와 계시의 책이다. 많은 예언을 말했고 성취가 되었다. 이런 책은 세상에 없다. 이것을 통해 성경이 진리인 것을 계속 증명하고 있다.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잘 모른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도 살아계시고 천사도 있고 귀신도, 천국도 지옥도 분명히 있다는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실을 역사적 증거로 쓴 책이 성경이다. 그래서 성경은 소설책이 아니다. 누가 지어낸 책이 아닌 이스라엘 역사를 바탕으로 해서 실제 있던 일을 기록한 것이다. 여기에는 많은 영적인 이야기들이 숨어있다. 우린 아무도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을 본 적이 없지만 그 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믿는다. 어떤 일을 했는지도 알고 있다. 이것이 역사이다. 성경이 그 내용을 기록한 방식이 바로 이런 것들이다. 성경은 단지 역사 자체를 알리려는 것만이 목적은 아니지만 이 세상과 다음 세상을 연결하는 많은 계시들이 들어있다.

### 1. 그 날은 온다.

▶ 하나님이 노아에게 굉장한 홍수가 일어날 것이라고 했다.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되었으니 너는 큰 배를 준비하라고 했고 노아는 순종했다.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지만 그 날은 왔고 다 죽었다. 소동과 고모라 사건도 그렇다. 실제로 유황불이 내려왔는데 그 때는 이미 때가 늦었다.

**살 5:3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 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롭고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 그래서 이 날을 대비하게 하신 것이 성경이다. 이 세상과 다음 세상을 다 알면서 살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온다. 부자가 죽어 지옥에 갔는데 너무 뜨거운 것이다. 물 한 방울만 줬으면 좋겠는데 그것조차 없는 것. 그래서 절대 이 지옥에 오면 안 된다는 말을 전해달라고 했다. 그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이미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고 했다. 만약 그들의 말을 믿지 않는다면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서 이야기해도 믿지 않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는데 지옥이 정말로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 사람이 green leaf 길 앞에서 지옥이 진짜 있다고 외친다면 몇 명이나 믿어줄까? 90% 이상이 미쳤나 싶을 것이다. 그러나 그날은 분명히 온다.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그 날, 노아의 날이 왔다. 농담으로 생각했던 그들에게 진짜로 유황불이 내렸다. 성경의 말씀은 정말로 그대로 되어졌다.

**마 5:18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일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마 24:27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행 1:11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 아무도 이것을 막을 자가 없다.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 하셨을 때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예레미야에게 “너희는 포로로 잡힐 것이지만 70년만에 돌아올 것이다.” 했는데 실제로 70년 만에 돌아왔다. 또한 애굽의 모든 장자와 신들을 벌할 것이라고 했을 때에도 그 날 저녁 바로왕의 장자까지 정말로 죽었다. 왕이 무슨 힘이 있는가? 아무 힘이 없다.

**계 3:20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 말씀처럼 지금 실제로 들어와 계시다. 그러나 사단은 끝까지 우릴 속인다. 그가 다시 오신다는 이 엄연한 사실을 믿어야 한다. 그 땐 돈 많은 것, 공부 잘 하는 것이 필요 없다. 얼굴 잘난 것도 소용 없다. 그 날은 오래 산 사람이나 일찍 죽은 사람이나 아무 구분이 없다. 오직 한 가지 “구원을 받았는가?” 필요한 것은 오직 이것 뿐이다. 이게 “그리스도”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 하고 공부하는 이유가 오직 이것을 위한 것이 된다. 우린 구원의 날을 향하여 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사는 자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인이 되어주신다. 그러면 저절로 되어지는 일들이 계속 일어날 것이다.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과 목표와 방향이 같기 때문이다. 우린 어딘가 하나님과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데 오늘부터 고치면 된다. 기적은 여기서 일어난다.

▶ 노아 시대 최고 비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그 날 비가 많이 오는 홍수의 날이었다는 것이 최고의 비밀이다. 노아 시대의 최고 지혜는 무엇이었을까? 그날의 답이 방주라는 것을 아는 것이었다. 그럼 이 시대는? 말세시대이다. 이 시대 최고 비밀이 무엇인가? 그 날이 있다는 것이다. 분명히 그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 그리고 최고의 지혜는 그 답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는 것이다. 이것보다 더 큰 지혜가 있는가? 왜 우리가 이 지혜를 알고 있어야 하는가? 죽기 때문이다.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성공도 외모도 필요 없다. 돈도 필요 없어진다. 그 날 높은 자리와 큰 명예가 무엇이 중요한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무엇이 목표가 되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되어야 하는가? 마가복음 5장에 군대 귀신 이야기가 나온다. 예수님이 나오라고 한 마디 했는데 바로 나왔다. 순간적으로 멀쩡해졌다고 했다. 근데 2000마리나 되는 돼지 때가 갑자기 바다로 들어가 죽어버린 것이다. 돼지가 자살 할 수 있는 동물인가? 돼지를 죽이려고 다가가보라. 안 죽으려고 난리다. 그런 돼지가 한꺼번에 바다에 빠져 죽었다니? 원인을 모르고 동네에 소동이 일어났다. 사람들은 재산에 더 관심이 많았겠다. 2000마리가 한꺼번에 날아가버렸으니 말이다. 그런데 시대적인 메시지가 들어있다. 지금 재산이 문제가 아니라 눈이 어두운 게 문제다. 지금 귀신들린지 몰랐던 것, 그게 문제다. 그리고 그 귀신을 쫓아낸 내가 누군지 모르는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두려워 하여 그 동네를 떠나기를 원했다. 완전히 까막눈인 것이다. 세상이 이렇다는 또 하나의 메시지도 있다. 우리가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시대적인 일이 일어났는데 눈만 멀뚱히 뜨고 있으면 되겠는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고 있는 것이다. 마음이나 생각이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다. 완전한 영적 소경이다. 당연히 인생이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눈을 떠야 한다.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과 통해야 한다. 하나님과 뜻이 통해야 한다. 무엇이 중요한가? 어떻게 하는 것이 답인가? 정말 그 날은 오는 것인가? 여기에 눈 열리지 않으면 내 인생은 구덩이에 빠지는 것이다. 행복한 데 어느 날 구덩이에 빠진다.

▶ 그 동네 사람들의 상태는 어디쯤 있는가? 재산은 없어졌지만 어디 가서 말 할 때가 없다.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다 귀신들이 돼지 때에 들어갔다는 것을 뭘로 증명할 것인가? 돼지는 한꺼번에 2000마리나 죽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아야 할 것인가? 그 눈이 있어야 예수님이 누군지 알 수 있다. 사람이 왜 자살하는가? 몰라서 자살한다. 눈이 안 열리니까. 예수님을 알고 귀신을 알아야 한다. 그 동네 사람들은 밧줄 가지고 묶였을 것이다. 밧줄을 금방 끊으니까 쇠고랑으로 묶었다. 그래도 모르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싫고 단지 무섭기만 하니 떠나가 달라는 것이다. 우린 이런 영적 문지에서 나와야 한다. 진짜 눈 떠야 한다. 눈 안 뜨면 열심히 하고 잘 하고 최고로 해도 인생은 결국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 그리스도를 다시 한 번 언약으로 잡기 바란다.

## 2. 그러므로 우리는 이 비밀을 전해야 한다.

▶ 만일 예수님이 진짜 오셔서 이 모든 것을 정리하시는 것이 사실이라면 복음 전하는 것 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이것과 비교할 수 있는 일은 세상에 없다.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이 복음을 위하여 일 하는 것! 이 복음을 위하여 공부 하는 것이다. 나의 모든 일이 이것이 목표가 되는 것. 이것과 비교할 수 있는 일은 세상에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이끌어 가실 것이다. 내가 이끌려면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이 되면 여기저기 기적이 일어난다. 되어드는 일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더 확실한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 군대 귀신에게 예수님이 네 이름이 무엇이나고 물었다. 우리는 많기 때문에 내 이름은 군대라고 했다. 귀신도 말을 한다. 좀 오래전에 이야기인데, 한창 복음 받고 너무 감사해서 복음 전하고 다닐 때이다. 하루는 귀신 들린 두 사람과 마주 앉아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한 쪽 귀신 들린 사람이 다른 귀신 들린 사람을 보며 저거 예전에 내가 데리고 놀던 귀신이라고 하더라.

▶ 어떤 귀신드린자는 나가라고 하니까 후라이팬 위에 볶은 고기처럼 지옥은 너무 뜨겁다고 한다. 그러니 제발 여기 있게 해달라고 한단다. 지옥과 천국이 정말 있는가?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시는가? 그 날 세상의 모든 것이 끝난다. 우리는 이것을 향하여 살아야 한다. 그날 믿지 않는 모든 영혼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우리는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다. 그리고 영원히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다.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고 했다.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 함을 받는다고 했다. (막 9:49)

## 살 4:16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 번개가 동쪽에서 쳐서 서쪽에서 번쩍임같이 그 날에는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라고 했다. “그 날”이 있는 것이다. 지옥이나 귀신 이야기 하면 수준 낮은 사람으로 취급하는 사람도 있다. 근데 이건 수준 낮은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적인 이야기이다. 우리를 무슨 은혜인지 여기서 건져주셨다. 뭐라고 하나님께 감사하겠는가? 안 죽으면 모르겠지만 우린 반드시 죽어야 했다. 누가 이 죽음의 운명에서 벗어나겠는가? 이 은혜가 없으면 우리도 거기에 가는 건데 말이다. 이 절박함이 복음이다. 많은 사람이 목에 쇠고랑을 차고 지옥에 끌려간다고 한다. 저는 본 적은 없다. 그러나 그럴 것이라고 믿는다. 귀신이 사정을 봐주는가? 사정없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내가 가정, 이웃, 친구를 살리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살리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 가장 간절히 기도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게 하나님 뜻일 것이다. 하나님에게 다른 목표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기쁘거나 좋게 볼 만한 게 사람 살리는 것 외에 또 있겠는가?

▶ 우리에게 무엇이 한번 가치인가? 그거 깨야 한다. 그거 깨지면 내 인생 살아난다. 그것을 죽을 때까지 잡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온 마음을 다하여 그것만 잡는다면? 인생이 구덩이가 될 것이다. 성공 했어도 구덩이다. 은혜로 믿긴 믿었는데 가보니 상급이 하나도 없는 것, 부끄러운 구원이다. 너는 그날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 너는 무엇을 위하여 살며 어떻게 살 것인가? 너는 그 날을 정말 믿는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 우린 이 지역에 우리 교회가 있다. 너는 최선을 다해 이 복음을 전하라. 평일에는 네가 사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여기 오는 날에는 여기서 복음을 전하라. 무엇이 그렇게 가치가 있는가? 하시는 것. 우리는 신앙생활을 점잖게 하는 게 아니다. 품 잡는 게 아니라 전쟁하는 것이다.

## 엡 6:12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구원 받을 한 사람을 두고 전쟁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한 지역을 두고 사단과 전쟁 붙는 것이 전도이다. 개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이다. 우리에게 많은 축복의 약속을 주셨다. 귀신은 이것을 방해하고 사단은 어떻게든 이것을 안 주려고 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의 약속을 두고 사단과 전쟁 하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내가 받을 응답을 두고 뱀의 머리를 박살 내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 그 축복으로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사람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목표이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었지만 이 목표에서 방향이 빗나갔다면 고쳐야 할 것이다. 오늘부터 당장 뜯어고치라. 틀린 것이다. 다른 좋은 것을 아무리 해도 이것이 목표가 아니라면 틀린 것. 우린 이것을 두고 기도해야 한다. 우리의 목표는 대부분 응답 자체에 있는 경우가 많다. 그건 내 기도이다. 우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도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 안에 그 기도가 살아있다. 자꾸 응답 받기만을 원한다면 우리 기도를 고치고 회개해야 할 것이다. 이런 기도를 자꾸 하도록 옆에서 부추기는 뱀의 머리를 박살내야 한다.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생각은 영혼을 건지는 전도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유는 그 날이 오기 때문이다. 그날 오면 끝난다.

## 결론

▶ 그날은 분명히 온다. 먼저 이 사실에 대하여 확실히 깨어있어야 한다. 흔들리지 말고 잊지도 말아야 한다. 우린 사람을 살리는 전쟁을 해야 할 것이다. 제자를 찾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전쟁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제자를 찾는 것이다. 우린 한 사람이라도 더 건져야 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 생각이 없다면 분명히 하나님과 다른 방향으로 살고 있을 것이다. 아니면 하나님과 교제가 없을 것이다. 우리는 이 전쟁을 지속해야 한다. 대를 이어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램프트 제자가 필요하다. 특별히 교역자들과 제자들은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일에 생명을 걸어야 한다. 교역자는 일꾼이 아니다. 전도자의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이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이다. 우린 모두 하나님의 그 날을 향하여 살아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 그게 진짜 응답이다. 내가 너를 보니 너가 말 하기 전에 내가 이것을 먼저 주어야겠다. 하시는 것. 하나님과 뜻이 통하는 사람! 우린 전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사단은 우리 인생에서 손을 뺄 것이다.

그 날의 답이 오늘의 답이다. 그게 그리스도! 더 깊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정말로 특별한 날이 되기를 바란다.